

Nr. 2023 - 03-04

평화



Licht und Salz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7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평화

편집부

“평화를 빕니다”

미사 중 주님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가톨릭에서 평화의 인사의 의미는 기도이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참된 서약입니다.

간혹 나 자신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빌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평화를 빌어주고 나면 금세 내 안으로 부터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평화의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은 서로를 위한 안녕의 의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어느때보다 전 세계의 평화가 필요한 이때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마음의 평화를 빌어준다면, 돌아오는 봄이 더욱 따뜻할 것입니다. 🌈



편집부 회의

평화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좋은 글 / 임미숙 엘레타 수녀

복음글

공소 글 (뵤르츠부르크) / 박동정 마리아



2023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시작 (Neuanfang)

3,4월 평화 (Friede)

5,6월 감사 (Dankbarkeit)

7,8월 휴식 (Pause)

9,10월 순교 (Martyrium)

11,12월 성찰 (Reflexion)



설날 미사 후 공동체식 식사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12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17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순 묵상: 복음적 기억

허광철 요셉 신부

사순(四旬)

우리는 주님의 수난을 바라보며 부활을 그리워하는 사순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순시기는 무엇보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요한 14.16)과 더 깊이 사랑을 속삭일 수 있도록, 인간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귀 기울이는 만큼 은총의 시간이 됩니다.”(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순시기 담화문 중)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수많은 불거리와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니라 다시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진정한 부활과 평화’를 갈망하도록 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기억 (마태 26,69-75)

사순시기가 되면 수난의 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늘 눈앞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그러나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베드로, 모티브는 그가 체험한 ‘복음적 기억’에 있었음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 역시 ‘복음적 기억’이 되도록,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 ‘평화와 부활’을 살아가도록 다음의 마태 26,69-75의 묵상을 선물해 드립니다. 묵상은 읽기와 묵상, 기도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형식입니다.

읽기 Lectio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부인하는 베드로(69절, 71절), 그는 예수의 존재마저 부인(72절, 74절)하여 자기 입으로 고백한 신앙(마태 16,16)마저 철저히 저버린다. 적당히 넘어가거나 공공 숨기고 싶은 초대교회 최고의 스캔들이라 불릴만한데 어째서 4복음서는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75절)

공관복음은 한결같이 배반이야기의 말미를 슬피우는 베드로로 장식하며 ‘주님말씀이 생각났다’고 강조한다. 그리스어 ‘생각하다’는 그대로 ‘기억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였을까? 단순히 배반하리라는 경고말



성 아우구스티노 성경모임 신년미사

씀만을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배반예고에 대한 루카의 시선은 좀 더 세밀하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루카 22,31-32)

배반도 하기 전에(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다. 용서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약속과 사명수여 말씀으로 베드로의 ‘믿음과 삶’ 전부를 규정하신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기억한 것은 ‘예수와 함께’ 한 모든 시간,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위로 확대된다. 결국 베드로의 기억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는 성사적 기억(anamnesis)의 한 단면이 된다. 베

드로의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그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체험으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된다. 배신과 실패(죽음)에 대한 아픈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부활)을 독려하는 ‘복음적 기억’이 된다. 베드로의 배반은 비로소 베드로와 유사한 체험으로 아파하는 초대교회 모든 이를 복음적 기억으로 초대한다. 그 기억은 죽음으로써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요한 13,1)에 대한 기억이 며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기억이다.

나아가 복음적 기억은 성령의 주된 역할(요한 14,26)이다. 배반과 실패에 대한 기억이 기쁜 소식으로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확실히 믿는 이가 주님을 만나는 한 방법이다.

묵상하기 Meditatio

기억은 성경을 이루는 신앙의 근본원리라 할 수 있다. 구약신앙은 에집트 탈출이라는 근본적 구원체험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탈출 13,3). 신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믿음과 삶’으로 고백한 총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의 기억은 ‘성령 안에서’ 복음적 기억이 되어야 하고, 그 기억이 자기신앙의 근본원리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아픈) 기억이 있다.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나거나 아무도 몰래 공공 숨겨놓았지만 기억으로 꺼내놓기만 하면 나를 흔들어 버리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자신에 대한 것이든 원수와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믿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힘도 떨어졌다고 나쁜 기억의 노예가 되어 ‘믿음과 삶’을 포기해 버리고 싶다고 되뇌인다.

인간적인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기억에만 머물지 않았다. 배반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사랑에 대한 기억은 배반의 한계를 뛰어 넘어 베드로가 부활을 제대로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죽음의 상처보다 더 큰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복음적 기억’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

한 기억, 하느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기억 그것은 진정 복음(기쁜소식)이다.

따라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아픈(나쁜) 기억은 주님사랑과 그분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 복음적 기억이 될 수 있다. 외면하고 꺼내놓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는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루카 22,32) 도와주실 것이다. 복음적 기억을 살아가는 이는 결코 ‘믿음과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기 Oratio

주님, 당신 수난의 절정을 바라보면서도 작은 고통에 매여 허덕이는 저를 반성합니다. 끝까지 보여주시는 당신 사랑과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저의 모든 아픈(나쁜)기억이 복음적 기억이 되도록 성령의 손길로 위로해 주소서. ■■■





꾸르실로 환영미사

평화 2023

전영민 수산나

평화라는 말처럼 듣기만 해도 포근한 감정이 마음을 꽉 채워주는 좋은 말이 또 있을까. 그림던 고향에 돌아 온 느낌이고 죽이 잘 맞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것 화창한 봄날 강둑을 걸으며 아름다운 추억에 잠겨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그윽하게 하는 평화로운 상상이다.

세상의 온갖 좋은 이미지들, 사랑, 이해심, 배려, 기다려줌, 양보, 친절, 오후, 온순, 관대 등등이 평화라는 말속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본성적인 것들이 결핍 되었을 때 인간관계는 조화를 깨뜨리게 되고 나아가 서로간의 불신을 낳게 된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 평화가 깨짐으로 해서 일어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느 누구도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없는 삶은 행복도 없는 것이다

평화는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하고 더 정확히 말 한다면 우리들 안에서 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안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이나 겉모습은 속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라고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평화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시기, 질투, 멸시, 무관심 등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되고 서로 단합하여 부족한 것을 내 안에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내 주위 사람들을 좀더 관심있게 바라본 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하고 공평할 것이다.

하지만, 소망과 일상의 삶, 이상적인 것과 눈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점은 자주 좌절과 고통의 벽에 부딪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삶은 녹록치가 않은 것이다.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행복은 깨어지고 연결된 사랑의 고리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생각들이 자리하고있기 때문이다. 낙천적이고 어떤 일에 접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며 열정적이다. 사랑이



설날 미사 후 세배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야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것이다.

평화를 논 하면서 전쟁을 말 하지 않을 수는 없을것이다. 우선 가장 현 시점에 부딪친 최근사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물망같은 세계조직 체제안에서 살고있는 우리는 많은 삶의 영역안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고있다. 유럽의 곡식창고라고 일컫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발발하고 있는 전쟁으로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젊은이들은 전쟁에 보내지고 농업 지대로 곡물 재배에 좋은 농토는 전쟁터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 곳에서 수확되는 여러가지

농산물, 옥수수 해바라기씨 랍스 같은 것들을 긴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수출을 할 수 가없는 상태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수확되는 곡물에 많이 의존 하고있는 형편이다. 공급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 많은 젊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인가. 죽음과 파괴의 분쟁 지옥같은 전쟁을 왜 멈추지 못할까.

6.25를 치른 우리나라 사람들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트라우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어느때 라도 다시 침략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남한사람들을 불안속에 떨게하고 있는것이다.

어찌하여 인간은 과거의 쓰라린 아픈 추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을까.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면서 다 함께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고 아이들 같은 나이브한 생각을 해 본다.

평화는 우리나라에 가장 긴급한 문제이고 북한과의 통합으로 독일처럼 피 없는 통일이 올 수 있을까. 어느날 아침에 깨어보니 갑자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더라 북한과 한 나라가되어 통일이된 것이다. 이런 상상을 자주 해본다. 과연 우리 세대들이 이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하기전에,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체험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대 문호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여 패배한 역사소설로 "내 사전에 패배나 불가능은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모든면에 자신만만 했던 나폴레옹이었지만 이 전쟁으로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고 그로 인해 깊은 나락으로 빠지면서 영웅의 자리를 빼앗긴 격이되었다. 유럽대륙을 종횡무진 하던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하늘을 찌르는듯한 그의 교만함이라는것을 톨스토이는 후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한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인간이 달에 갔다왔다지만 이웃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고 세계평화를 이야기 하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이없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걸림돌, 시기 분노 원망을 치워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오는것에 큰 몫을 하는것이라고 확신

한다. ■■■



설날 어린이 세배1



설날 어린이 세배2



설날 어린이 세배3



설날 청년 세배

신의 부재? 신의 일식!

임미숙 엘레타 수녀

20세기 위대한 종교철학자 중 한 명인 유대인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신은 죽었다’로 대표되는 무신론적 경향에 대하여 ‘신의 일식’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느님이 숨어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신의 부재’ 혹은 ‘신의 죽음’이 아니라 ‘신의 일식’이라는 참 멋진 말을 한 것입니다.

‘일식(日餘)’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쉽게 말해 ‘해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이 태양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리는 천문현상에 따라 ‘개기일식’ 또는 ‘부분일식’이라고 일컫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지구 - 달 - 태양 순으로 동일선상에 위치할 때 태양이 일정 시간 동안 달에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하느님께서 숨어계셔 보이지 않는다고 ‘신의 부재’, ‘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단지 잠시 숨어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은 숨어계신 하느님에 대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두움이 짙고 암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첫 시작에서 ‘구원의 하느님’이라는 호칭만이 전체 시에서 볼 수 있는 한줄기의 유일한 희망의 빛일 뿐 칙흑 같은 어둠이 드리운 시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역시 ‘어둠’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길고도 긴 ‘통곡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식의 시편으로 분류 되는 시는 대체로 시작은 탄식으로 하나 일정부분이 지나면 하느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와 희망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88편은 그 어떤 신뢰나 소망, 서원이나 희망의 확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통과 비탄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암울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시편의 음악적 기호인 ‘알 마 할랏 르안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는 애절하고 비장한 곡조를 뜻한다는 추측이 생뚱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가장 처절한 상황을 노래하는 시편 88편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낭송됐습니다. 철저한 하느님의 침묵 속에 완전히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이 이 시편의 내용에 꼭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처연한 옴의 기도와 처절한 예레미야의 애가에 비견할 만하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시편 88편의 저자는 자신이 겪는 고

통을 토로는 하지만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이 깊은 어두운 밤을 겪고 있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죽음의 세계에 빗대어 드러낼 뿐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세계를 네 문장마다 각각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죽음의 세계를 ‘저승’, ‘구렁’, ‘무덤’, ‘깊은 구렁’, ‘어둡고 깊숙한 곳’, ‘멸망의 나라’, ‘어둠’, ‘망각의 나라’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의 특징과 더불어 하느님의 특성을 대조시키기도 하는데 ‘자



청년회 2월 미사

애’, ‘성실’, ‘기적’, ‘의로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12-13절에서는 죽음의 세계의 특성 네 가지와 하느님의 특성 네 가지를 서로 대구(對句)하여 표현하며 하나의 쌍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겠습니까?(12-13절)

무덤에서

당신의 자애가

멸망의 나라에서

당신의 성실이

어둠에서

당신의 기적이

망각의 나라에서

당신의 의로움이

시인은 하느님의 권능에 대하여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며 죽은 이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시인은 살아 있지만 사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죽음의 세계에 버려졌다는 사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하느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심적 고통은 ‘하느님의 숨어계심’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찾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에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나 찬양하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롭게 어둠의 시간을 견디며 ‘신의 부재’가 아닌 ‘신의 일식’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시(時)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직면한 거친 상황에서도 ‘주님, 제 구원의 하느님’이라고 나지막이 되뇌며 우직한 모습으로 숨어계신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울음이 터질 듯한 애처로운 목소리에 묻힌 시인의 고백이 응답 없는 하느님께 가닿음을 압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신의 일식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응답이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시편 저자처럼 ‘주님, 제 구원의 하느님’을 읊조리며 마음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나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설날 미사후 공동체실에서



설날 미사후 공동체실에서2

독서



성 아우구스티노 성경모임 신년미사2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1,8ㄴ-10

사랑하는 그대여,

8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9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꾸르실료 환영미사2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 1-9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박동정 마리아

평화라고 말하면 우리는 먼저 전쟁의 반댓말로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싸우지 않고, 겉으로 보았을 때, 문제없어 보이는 조용한 상태.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이나 독일이 평화스러우나 라도 묻는 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정의의 평화의 의미로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평화란 아주 송고한 단어가 되는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엔, 항상 가정 방문을 오신 분들께서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흔한 인사이지요. 한국 성당의 성물방을 구경해 보아도 평화를 빕니다 라는 목판은 많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씀은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과에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말이죠. 저희가 미사 때 성체를 나누기 직전에도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대체 평화란 말이 저희 가톨릭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평화란 사랑이 가득 찬 마음에, 어지러움이나 고통, 걱정이 없이, 온전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적인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송고한 감정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거나, 또 그 마음의 바뀌어 질투나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과 불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온전하기란 한 순간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말하는 평화란 세속적인 사랑의 감정을 이미 넘어서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 낸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더욱 더 포괄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강복해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제창 후 미사 때 시행하는 평화의 예식도 주님의 기도를 잇는 자기 반성과, 성체를 모시기 전 평화를 주려고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평화의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니, 단순히 생각했던 평화의 인사가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비둘기도, 꾀꾀한 홍수같은 재난 속에서도 방황하는 저희를 위해 땅이 있고,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란 주님의 메시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어렵지만, 또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독일에 살면서 어쩌면 더 평화롭기 힘든 여건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피해의식일지도 모르는 인종차별과 소통의 어려움, 우중충한 날씨와 고립감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경정신과에서도 해외로의 이주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라고 하지요.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로 희망을 보았듯이, 저희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비둘기를 보내주심을 믿고 (아니 어쩌면 이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말미에 실어 드리며, 멀리 뷔르츠부르크에서 공소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 보내 드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 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뷔르츠부르크 공소 소개

뷔르츠부르크는 도시의 지명 유래가 분명치는 않고 어원에 따라 추정되는 여러 뜻이 있으나, 독일어 어원으로 는 허브(Würze)가 풍부한 도시 (Burg 도시, 성의 의미)로, 저는 어떤 분이 문학적으로 의역하신 풀잎 언덕이라는 뜻 풀이를 좋아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사랑했던 도시이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고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뷔르츠부르크를 고향으로 선택하겠다.“ („Wenn ich ein zukünftiger Dichter und gerade mit der Wahl meines Geburtsortes beschäftigt wäre, dann würde ich die Stadt Würzburg sehr mit in Erwägung ziehen.“)

독일 지도를 보시면 뷔르츠부르크는 독일의 중앙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다른 독일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분지 지형에 독일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고, 석회 함유량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 예전부터 와인 산지로 유명하였습니다. 특히, 독특한 주머니 모양의 Bockbeutel에 담긴 우리 지역 특유의 화이트 와인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합니다. 로맨틱 가도의 시작점이고 마인 강유역의 운송통로를 따라 배들도 오가고 있어 독일에서 당일치기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뷔르츠부르크에 오시고 싶으시다면, 매 년 5월에 열리는 모짜르트 페스티벌 (Mozartfest)을 주목해 보세요.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레지던츠 성 안에서 모짜르트의 음악과 함께 늦은 봄의 정취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소에는 많지는 않지만 일찍이부터 공소를 지켜주시며 항상 귀한 음식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계시는 공소 회장님 및 어르신 분들과, 미사를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주시는 음악 연주자 및 음대 학생 분들 그리고, 뷔르츠부르크 대학 및 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자 분들과 학생 및 교환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공소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고, 저희 같은 작은 인원을 위하여 멀리서 300 km 를 오셔야 하는 신부님께서는 매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도 큼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적은 공소의 운영을 나누어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공소지만, 한 분 한 분이 한 번의 미사를 기여하는 정도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역할을 기꺼이 나누어 맡으며 그 안에서의 사

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뷔르츠부르크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세째 주 토요일에 공소 미사에도 함께 해 주세요. 모두들 환영합니다!!



박동정 마리아 자매님



허 신부님과 김부제님 내외분과 소피아 자매님

〈아브라함을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시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12,1-4 7

그 무렵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일 미사 안내

민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르쯔부르그 공동체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그 공동체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 금 : 09:30 - 16:3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호현 로사

유재민 노엘